



제1,182회

가족과 함께 풀어보세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가로열쇠>

1. '모든 구절, '말 한 마디 한 마디마다'라는 뜻을 지님. ○○○ 옮으신 말씀.
3. 가맹점의 주인 프랜차이즈 업체에서는 퇴직자들을 ○○○로 유치하려는 움직임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5. 절대적으로 확실하지 않으나 아마 그럴 것이라고 생각되는 성질. 일의 실마리를 풀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도 배제할 수 없다.
6. 프랑스의 사상가. 대표적인 도덕주의자로, 회의론을 기조로 하여 종교적 교회도 이성적 학문도 절대시하는 것을 물리치고 인간으로서 현명하게 살 것을 권장하였다.
8. 심신 수련을 위해 산이나 계곡 따위를 다니는 도보 여행 등반과 하이킹의 중간 형태.
9. 자연 풍경이나 도시의 환경 등 집 밖의 경치를 그린 그림.
11. 대한민국의 여배우. 아가씨, 미스터 션사인, 리틀 포레스트 등에 주연으로 출연했다.
12. 어떤 일이 되기 위하여 필요한 물건, 자세 따위가 미리 갖추어져 차려지거나 그렇게 되게 함. 겨울 ○○○에 바쁘다.
13. 안우진 장영일이 속한 6인조 다국적 걸그룹. 대표곡으로 'ELEVEN', 'LOVE DIVE'가 있다.
15. 규정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때 본래 부과된 금액에 일정 비율로 금액을 부과하는 세금.
17. 병원이나 학원과 같이 '원(院)'자로 끝나는 기관을 세워 처음으로 일을 시작함.
19. 일정한 부호, 표지, 소리, 몸짓 따위로 특정한 내용 또는 정보를 전달하거나 지시를 함. ○○○가 녹색으로 변하자 아이들은 건널목을 건넜다.
21. 우리나라 고유의 글자. 국경일인 ○○○날도 있다.

22. 가정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됨.

<세로열쇠>

1. 조선 숙종 때에, 문인 김만중이 지은 장편 소설. 한국고전 소설의 대표 작품이며, 인생무상이라는 주제를 담고 있다.
2. 신념, 신의 따위를 굽히지 아니하고 굳게 지키는 깨끗한 태도. 김시습은 의리와 ○○○가 높다 하여 생육신의 한 사람으로 불리기도 한다.
3. '가격 대비 성능'의 준말로 투입한 금액과 비교한 성능이란 뜻. ○○○가 좋다.
4. 시간이 지날수록 하는 짓이나 물결이 더욱 풀불견임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이야기가 갈수록 ○○○이다.
7. 대형 설치류의 일종. 늑대구리라고도 하며 괴물쥐로 불린다. 2009년부터 생태계 교란 야생생물로 지정 및 관리되고 있다.
9. 바람이 불어 우박이 이리저리 흩어진다라는 뜻으로 엉망으로 깨어져 흩어져 버림을 나타내는 고사성어. 집안이 ○○○○났다.
10. 재물이 계속 나오는 보물단지. 그 안에 온갖 물건을 담아 두면 아무리 써도 줄지 않는다는 전설의 물건.
11. 대표적인 한국 요리 중 하나로, 김치를 넣고 얼큰하게 끓인 찌개.
14. 조선의 명장이자 구국영웅으로, 임진왜란 및 정유재란 당시 조선 수군을 지휘했던 제독. 시호는 충무공이다.
16. 목욕탕에서 타인의 때를 미는 직업을 칭하는 말. 한국직업분류상으로는 목욕관리사로 칭해진다.
18.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하여 어어지린 마음. 그는 누구에게 ○○○을 살 만한 사람이 아니다.
20. 팔거나 사려는 물건의 값을 얼마라고 부름.

○ 제1,182회 '가족과 함께 풀어보세요'는 달성군 다사읍 다사로71 박재훈 독자께서 출제해 주셨습니다. 출제해 주신 분께는 작은 선물을 우송해 드립니다.

▶ 보내실곳: 42640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611번지 (감삼동 68-4) 4층 푸른신문 편집부 앞
E-mail:pr5726000@naver.com

→ 응모엽서에 성명과 우편번호를 반드시 적어 주세요

▶ 정답자 발표: 1,330호



1,180회 퍼즐 상품 받으실 분

* 당첨상품은 우송해 드립니다.



이용권 2매 ☎1688-8511

박재훈(달성군 다사읍)

김현옥(달서구 월배로)

임주은(달서구 달구벌대로)

강병희(달서구 한실로)

윤효경(달서구 감삼2길)

정혜은(서구 국제보상로)

<1,180회 정답>

대	조	영	게	친	구
바	으	씩	으	씩	설
심	부	름	름	백	수
백	장	장	쟁	혈	
일	숙	이	목	구	비
해	열	제	슬	덜	몽
중	동	그	라	미	사
쉬	머			악	몽
어	체	구	니	골	수

♣ 가족과 함께 풀어 보세요 정답을 아시는 분은 본사 편집부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8월 13일(화)까지 도착된 엽서 중에서 추첨을 통해 상품을 드립니다.

주소를 정확히 기재해 주십시오. 당첨상품을 우송해 드립니다.

푸른신문

대표전화: (053) 572-6000 팩스: (053) 572-6006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323길 13(감삼동 3F)
www.prsinmun.co.kr (우편번호: 42640)

- ▶ 등록일: 2000년 10월 17일
- ▶ 등록번호: 대구다 01130
- ▶ 간행: 주간
- ▶ 인쇄처: 미디어프린팅넷(株)
- ▶ 발행인: 김현두
- ▶ 편집인: 김현두

☑ 은행계좌입내 SC 제일은행 556-20-270245
예금주: 푸른신문(김현두)

*구독료 1년 15,000원

본지는 주간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www.prsinmun.co.kr

푸른신문 구독신청 방법

- 구독료 : 1년 15,000원
- 입금계좌 : SC제일은행 556-20-270245 예금주:푸른신문(김현두)
- 전화 : (053) 572-6000 팩스 : (053) 572-6006

달서구·달성군 지역신문 '푸른신문'은 지역밀착형, 주민밀착형 지역신문으로서 지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 중앙지나 지방 일간지에서 다루지 못하는 우리 이웃들의 훈훈하고 작은 이야기들 까지도 읽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이웃과 더불어 지역에 대한 애정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 건전한 비판을 통해 지역문화를 창달하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